



##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이거"

### 장인 정신을 향한 찬사

1931년, 리베르소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컬렉션을 상징하는 회전 케이스는 폴로 경기에서 시계 다이얼과 글래스를 보호하는 획기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소재의 케이스백은 인그레이빙이나 에나멜, 다양한 장식과 같은 예술적인 표현을 추가할 수 있는 화폭이 되었습니다.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출시 90주년을 맞이하여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이거"를 선보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매뉴팩처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설 연휴와 상하이에서 플래그십 부티크를 오픈하는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호랑이의 해를 기념하는 타임피스를 공개합니다.

시계 케이스를 반대편으로 돌리면 핑크 골드 케이스의 메탈 부분에 새겨진 호랑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폴리싱 처리된 타이거의 표면과 로둠 브러싱 처리된 스트라이프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불투명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 배경에서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뛰어나올 것만 같은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숙련된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인그레이빙을 표현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끌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메탈을 조각하는 모델링 인그레이빙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기에 고도의 집중력과 탁월한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특히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을 재해석하는 까다로운 과정 외에도 메탈 표면에 인그레이빙을 새기는 일반적인 작업 공정과는 달리 그랑 퓨 에나멜 코팅을 마친 후 인그레이빙을 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에나멜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인그레이빙 장인의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며, 인그레이빙 작업 시간에만 55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의 다이얼은 케이스백과 같이 불투명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을 갖추었습니다. 우아하고 심플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에 핑크 골드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 레일웨이 미닛 트랙 및 도피네 핸즈를 장식하여 섬세하게 표현한 빛나는 배경의 아름다움에 완벽함을 더해줍니다.

블랙 에나멜에 담긴 심플한 매력은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랑 퓨 에나멜의 특성과 대조적입니다. 한 층을 더할 때마다 가열하는 방식으로 에나멜을 층층이 쌓아 올려 깊고 그윽한 블랙 컬러를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이거"를 구성하는 두 개의 시계 페이스에 에나멜을 장식하기까지 최소 20 시간이 소요됩니다. 컬러와 투명도가 완벽히 일치하는 에나멜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장인들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체 에나멜 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극소수의 매뉴팩처 중 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공예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호랑이의 해를 기념하여 주문 제작으로만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이거"는 원하는 에나멜 컬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의 케이스백은 에나멜과 인그레이빙에서 미니어처 페인팅과 잼세팅 그리고 탁월한 작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장인들이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고, 예술적 표현을 담아내는 매력적인 캔버스가 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은 매뉴팩처에 속한 위치메이커들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히 조화를 이룬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 상세 정보

###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크기: 45.5mm x 27.4mm x 9.73mm

칼리버: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A/2, 매뉴얼 와인딩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케이스: 핑크 골드

다이얼: 그랑 퓨 에나멜, 애플리케 인덱스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 인그레이빙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24K1 - 주문 제작

---

###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